

교회생활 안에서 교회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삶
(토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5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부패하지 않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함

성경: 막 12:30, 고전 2:9, 딤후 4:8, 엡 6:24, 5:1-14

I.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 막 12:30, 고전 2:9.

- A.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주님께서 그분 자신이 표현되실 수 있도록 거처를 갖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 엡 3:16-17.
- B. 우리가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 딤후 3:15.
- C.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멈추고, 주님께서 우리 존재를 완전히 소유하시게 하는 것이다 — 엡 3:16-19, 갈 4:19.
- D.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최상의 길은 “주 예수님, 당신께 열어 드립니다. 저를 완전히 소유하소서.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는 당신께 열려 있습니다. 저의 존재의 모든 부분에 도달하시고 제 안에 거처를 정하실 때까지 저를 더욱더 소유하소서.”라고 말씀드리 는 것이다.
- E.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몫으로 취 하고(1:2, 9, 5:7-8, 10:3-4),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도록 허락해 드리며(3:6), 우리가 그분 과 한 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6:17).
- F.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점유되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한다 — 딤후 4:8.
 - 1.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점유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께 점령당하는 것이다 — 엡 3:16-19, 갈 4:19.
 - 2.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할 것이다 — 딤후 4:8.
 - a. 바울의 말에 따르면,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이들을 위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 딤후 4:8.
 - b.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심판의 문제일 것이지만(고전 16:22),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한다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II.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직역하면, 부패하지 않는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엡 6:24.

- A. 바울의 글들에서 ‘부패하지 않는, 혹은 썩지 않는(incorruptible)’이라는 말의 쓰임에 따르면, 이 말은 주 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 천연적인 모든 것은 부패하지만, 하나님, 신성한 생명, 부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부패하지 않는다 — 딤후 1:17, 딤후 1:10, 고전 15:42, 52-54.
- B. 부패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새 창조물 안에서, 에베소서에 계시 된 부패하지 않는 모든 것에 따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1.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것 안에서(골 2:9), 몸의 요소이신 것 안에서(고전 12:12), 실재와 은혜와 평안과 사랑과 빛이신 것 안에서(요 1:17, 8:12, 14:6, 27, 요일 4:8), 한 새사람의 조성 성분(엡 2:15, 골 3:10-11)이신 것 안에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2. 이 모든 것은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 포함하여, 에베소서에서 계시해 주고 가르치는 것들과 관련된다.
 3. 에베소서는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삼일 하나님의 분배에 관하여(1:3-23, 3:16-21),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관하여(1:7, 2:13-18, 5:25-27, 29),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에 관하여(1:22-23, 5:23, 25-27, 2:6) 말한다.
 4. 이 모든 것은 부패하지 않는 것들이며, 우리는 부패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 안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 a. 우리가 이 모든 것 안에서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 엡 6:24.
 - b. 이러한 사랑은 천연적인 사랑이 아니다. 이 사랑은 부활 안에 있는 사랑, 곧 하나님 자신의 신성한 본질인 사랑이다 — 요일 4:16.
- C.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 신성한 생명,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어떠한 사랑,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교회에 관해 에베소서에서 계시된, 신성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하고 부패하지 않는 모든 것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 — 엡 1:3-23, 2:5-6, 13-18, 3:16-21, 4:4-6, 5:23, 25-27.

III.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할 것이다 — 엡 5:1-14.

- A.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종(種)에 속한 하나님-사람들이다 — 엡 5:1, 요일 3:1, 요 1:12-13.
1.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실제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실제 자녀들이다 — 요일 3:1, 엡 5:1.
 2.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경이로운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과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요일 3:1, 9, 4:7, 5:1, 4, 18, 요 1:12-13.
 - a. 우리는 신성한 생명으로부터 태어나서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신성한 사람들이다 — 요일 5:11-13, 3:1, 10.
 - b.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이들로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뿐 아니라 신성한 본성도 갖고 있다 — 뱀후 1:4.
- B.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해야 한다 — 엡 5:2, 8.
1. 사랑은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이고, 빛은 하나님의 표현된 요소이다 — 요일 4:8, 16, 1:5.
 2.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매일의 행함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실질과 하나님의 빛나는 요소, 이 두 가지 모두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행함의 내적인 근원이어야 한다 — 엡 5:2, 8.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 엡 5:2.
 - a. 에베소서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인 사랑 안으로 이끌어,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사랑의 달콤함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려서, 그 결과 그리스도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 엡 5:25.
 - 1) 사랑의 상태와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 엡 1:4.

- 2)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뿌리를 내리고 건축되기 위해 터를 잡는다. 이 사랑은 우리가 실질적인 방식으로 깨닫고 체험한 신성한 사랑이다 — 엡 3:17.
- 3) 그리스도 자신인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지식을 초월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을 체험을 통하여 알 수 있다 — 엡 3:19.
- 4)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무언가가 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한 가장 탁월한 길은 바로 사랑이다 — 엡 4:16, 고전 12:31.
- b.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種)이 된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 — 요일 4:8, 16.
4.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 엡 5:8.
 - a.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 요일 1:5, 엡 5:8, 요 12:36.
 - b. 우리는 빛의 자녀들일 뿐 아니라 빛 자체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빛이다 — 마 5:14, 요일 1:5.
 - c.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의 영역 밖에 있다 — 요일 1:7.
 - d.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행한다면, 에베소서 5장 9절에 묘사된 열매를 맺을 것이다.
 - 1)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실재로 표현되실 수 있도록, 빛의 열매는 본성에서 선행해야 하고 절차에서 의로워야 하며 표현에서 참되어야 한다.
 - 2) 선과 의와 참된 것 안에 있는 빛의 열매는 삼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 a) 선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빛의 열매의 본성이시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선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다 — 마 19:17.
 - b) 의는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절차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러 오셨기 때문이다 — 롬 5:17-18, 21.
 - c) 빛의 열매의 표현인 참된 것은 영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실재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 요 14:17, 16:13.
 - d)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에서 나타난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는 길, 즉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는 길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사랑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자라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라고 그분을 누린다. 두 책—구약에 있는 아가와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자라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아가는 우리가 믿는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함을 제시한다. 우리는 우리의 옛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다른 인격—우리가 사랑하는 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이란 다른 누군가를 자신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은 두 인격을 포함하지만, 그 두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창 2:24, 마 19:5, 엡 5:31). 결혼식에서 신부의 머리는 면사포로 덮여지며 오직 한 머리만 볼 수 있다. 두 사람이 맺는 어떤 관계에서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결혼한 부부가 참으로 하나일 때, 그들은 주님 안에서 화평과 기쁨을 갖는다. 그들이 하나가 아닐 때, 다시 말해서 그들의 가정생활에 머리가 둘일 때 분념과 많은 다툼이 있다. 어떤 사물들과 함께 살기는 쉽지만, 다른 인격과 함께 살기는 어렵다. 우리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때에만

화평하게 살 수 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의 존재의 각 부분에 들어오실 통로를 가지실 것이고, 우리 안에서 자라실 길을 가지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 사실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미국으로 왔을 때, 어떤 미국 사람들이 자신의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어떤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의 아버지가 나에게 자신의 딸을 인사시켰다. 나는 그 딸이 개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나는 그 딸이 개를 자기 침대에서 자도록 허락하기까지 한다는 말을 들었다. 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개와 함께 살 수 없지만, 그 소녀는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와 친근하게 살 수 있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자신의 어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볼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쁨이다. 우리는 짐이 된다는 느낌이 없이 그들을 돌볼 수 있다. 차이는 우리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사랑이 열쇠이다. 사랑은 우리로 할 수 있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가장 어려운 공과라 할지라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유일하게 받아들일 만하시고 사랑스러운 분이심

공자나 플라톤처럼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를 사랑하라고 말하거나 그를 그들 안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 그 철학자들은 사랑스럽거나 받아들일 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었다. 그들은 지혜가 있었으므로 그들의 제자들이 존경하고 공경할 만한 사람들일지는 몰라도, 그들 중 그 누구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들은 아니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공경이나 존경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라고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권고하셨다(막 16:16, 요 1:12, 3:15, 7:38). 오직 주님만이 받아들여질 가치가 있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받아들일 만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음식과 물과 공기(6:57, 7:37, 20:22)로 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세 번이나 물으셨다(21:15-17). 주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전적으로 사랑스러운, 즉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계시한다(1:1, 14). 사람으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첫째로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둘째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1:12, 14:21, 23, 21:15-17). 우리가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식료품을 살 때 음식 재료를 받지만, 그것을 누리려면 반드시 그 음식을 요리해서 먹어야 한다. 모든 믿는 이는 주님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이미 그분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그분을 사랑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 “주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것에 대해 특별히 기도할 부담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자주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그전 어느 때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 어떤 다른 기도도, 우리가 주님께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를 더 분발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루가 지난 후에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주 예수님, 오늘 하루가 지나간 이 시간에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께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릴수록, 주님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를 우리에게 더 보여 주실 것이며, 결국 우리는 그분께서 전적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풍성에 참여하기 위한 두 가지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런 후에 그분을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딤후 1:14)라고 말한다.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어떤 것을 꺼안거나 쥐거나 붙들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두 손과 같다. 우리에게서 두 손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충분한지의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누리려고 하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은, 한 손으로 일을 하거나 무엇을 쥐려고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어 들어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누리야 한다.

아기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 사이의 관계를 예표하는 사랑의 이야기이다. 아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1:2-3). 4절은 “나를 끌어당기라”(원문 참조)라고 말한다. 주님은 우리를 끌어당기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일단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분께 매혹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계시하실 때, 그 누구도 그분에게 저항할 수 없다. 요점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시다는 것이다. 우리는 추하고 무가치한 대상을 사랑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에는 즉시 매혹되어 그것을 매우 갖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이아몬드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 매혹되어 그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그분께 구한다면,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밝혀질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분께 더 많은 여지와 공간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는 길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움을 저에게 보여 주소서. 제가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혹될 수 있도록 주님 자신을 저에게 밝혀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분발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기를 갈망하심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경우 반드시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꺼뜨릴 수 있다. 주님을 위해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사실 기회를 그분께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은 오직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하신다. “주 예수님,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빈 그릇입니다. 저를 채우시고 저에게서 살아 나타나소서.” 이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어떤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다. 그 남편은 아내의 사랑에 즐겁기는 하지만,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 많은 일을 하기보다 자기를 아내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다. 다른 누군가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여 기꺼이 그를 위해 많은 것을 하려고 할 수 있지만, 그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기 원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린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라.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나는 단지 말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일이든 성취할 수 있다. 나는 네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내게 필요한 것은 네가 나를 너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이다. 네 안의 입지를 나에게 다오. 내가 네 안에서 너를 위해 너에게서 살아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온 존재를 차지하게 해 다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서 자라시게 하는 길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든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해에 의해 빛나기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들을 버리고 다만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저는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저의 인격으로 취하며, 제 속에 있는 모든 입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속 존재의 각 부분이 주님께 열려 있습니다. 주님, 저를 점령하시고 제 안에서 저를 위해 사소서. 저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제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 사심으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기회와 시간과 저의 존재 안의 공간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바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위해 일을 하려고 노력하느라 바쁜 것, 이 둘 중의 하나이다. 마르다에게는 후자의 문제가 있었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분을 섬기는 많은 일을 하느라 바빴고,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였는데,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마르다는 시중드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나를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여, 마르다여, 그대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애쓰지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 안의 입지를 드림으로써,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었다면, 우리는 분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분발된 후에 간교한 원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너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많은 일에 있어서 게을렀다. 이제 너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탓에 걸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원수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사탄아, 너는 거짓말쟁이이다. 주님은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그분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나에게서 떠나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거절할 뿐 아니라 주님께 열어 드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주님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차지하시기 위해 더욱더 들어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각 부분을 소유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실 것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미지근해지지 않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께 매혹될 것이다. 주님은 실질적이시고, 살아 계시며,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께 긍정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든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든 그분은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분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서신에서,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지적하신 첫 번째 문제는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선행에 있어서 견고했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2:2).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4절)라고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서신에서 타락의 첫 번째 원인은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마지막 서신에서 우리는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의 결과가 미지근함인 것을 본다(3:16).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는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점차 무의식적으로 잃어버리고, 그 결과 미지근함이 가득하게 될 큰 위험이 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신선함과 새로움과 생생한 충격력을 잃어버리고 신속히 미지근하게 된다.

우리가 미지근할지라도, 집회에는 여전히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갑지는 않다. 그러나 집회에서 우리의 영은 불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말을 듣기를 바라면서 집회에 오는 것은 미지근한 것이다. 주님은 미지근한 사람들을 그분의 입에서 토하여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6절). 주님의 입에서 토해지는 것은 그분께 거절당하는 것이고, 교회에게 주어진 그분의 모든 어떠한 심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당신을 향한 저의 첫째가는 사랑을 잃는 데서, 미지근하게 되는 데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 당신을 향한 저의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해 주소서.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제 안에서 저를 분발시키시고 저의 영 안에서 불타오르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입지를 얻으실 것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본 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문자에 속한 지식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로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돕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함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실지로 표현하는 법을 알기는 쉽지 않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한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배설물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를 갈망할지 모르지만, 내가 여러 해 동안의 체험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전진할수록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23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멈추어야 한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다. 큰 비극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느라 바쁘지만, 하나님께는 집이 없으시다. 세상 사람들과 죄악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느라 바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바쁘다. 모든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도 없이 바쁘지만, 주님께는 안식하실 곳이 없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기 위해 자유롭게 움직이실 기회가 없으시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길은 “주 예수님, 당신께 열어 드립니다. 저를 완전히 소유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거처가 되는 것을 더 필요로 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열어 드리기를 원하신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합당하게 표현하려면, 우리는 합당한 배우자가 되거나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과 같은, 좋은 의도에 근거해서 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제 자신을 당신께 활짝 열어 드립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것을 멈춥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차지하시기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저를 차지하시고, 소유하시며, 적시시고, 침투하십시오. 모든 기회를 붙잡아 제 안에서 더 많은 입지를 얻으소서. 주님, 저는 저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 안에서, 저를 통하여 하소서. 제가 어떤 것을 하느냐의 여부는 저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안에서 저를 위해 사시고, 저에게서 살아 나타나시기를 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쁜 것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좋은 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어떤 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단 순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는 당신께 열려 있습니다. 저의 존재의 모든 부분에 도달하시고 제 안에 거처를 정하실 때까지 저를 더욱더 소유하십시오.”

우리의 뭇이신 주님을 누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도록 허락해 드리며, 그분과 한 영 됨으로 주님을 사랑함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라고 말한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 임박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의 경고이다. 이것은 고린도전서를 끝맺는 말씀의 일부이다. 고린도의 믿는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관심하지 않으므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들 자신의 갈망을 관심했다. 그들은 은사와 같은 어떤 영적인 것들을 사랑했고,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책의 결론에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경고한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고 많은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제시한다. 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교지로 가거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많은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첫째로, 그분을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몫으로 취해야 한다(1:2, 9, 5:7-8, 10:3-4). 우리는 “주님, 당신은 저의 몫이십니다. 주님은 제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누림이십니다.”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둘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도록(3:6)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누릴 뿐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증가하시게 해야 한다. 셋째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분과 한 영(6:17)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거나 선교지로 가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기보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당신이 저의 누림이시고, 제 안에서 자라고 계시며, 당신과 저는 한 영입니다. 저의 매일의 생활의 각 방면에서 저는 저의 영 안에서 주님과과의 하나를 누립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께 완전히 점유되고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함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어려운 날들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며”(3:1-4)라고 말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돈에게 완전히 점유되고 돈의 소유가 되며 돈에게 점령당하여, 심지어 돈에 대한 꿈을 꾸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점유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께 점령당하는 것이다. 미국에는 사람들에게 스포츠와 여러 오락들과 같은 많은 즐길 거리가 있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은 스포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 완전히 점유되는 것이다. 우리는 꿈속에서까지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들을 하거나, 심지어 영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차지하시게 해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사십니다. 주님, 제 안에서 사시고 저를 위해 사소서. 제가 여러 해 동안 주님께서 제 안에서 저를 위해 사실 기회를 드리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리며, 주님께서 제 안에서 모든 입지를 가지시고 제 안에서 저를 위해 사실 자유로운 통로를 가지시도록 해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 곧 그분의 오심을 사모할 것이다.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딤후 4:8)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 안에서 저를 위해 사실 자유로운 통로를 드렸지만, 주님의 외적인 나타나심을 여전히 고대합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바울의 말에 따르면,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이들을 위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심판의 문제가 되겠지만(고전 16:22),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한다면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주님은 그분께서 표현되실 수 있는 거처와 그릇을 갈망하신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 예수님, 저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멈추며, 당신께 제 안에서 사시고 저를 위해 사실 자유로운 길을 드립니다.”(윌트니스 리 전집, 1973-1974년, 2권, *애너하임과 헌팅턴 비치에서의 여러 집회들*, 5장)